

창업 교육이 중장년 창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middle-aged and older people starting their own business

김화희(Hwa-Hee Kim)**, 김동일(Dong-Il Kim)***

국문초록 :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층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장년층의 창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하려는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여, 향후 창업교육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창업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은 확신 성과 신뢰성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는 신뢰도에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창업교육기관에서 지원 기관 중심의 창업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육내용 및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제어 : 중장년, 창업, 퇴직,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Abstract : In recent years, as more and more middle-aged people who worked at companies are retiring, they are becoming interested in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and the rate of middle-aged people starting businesse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al services and trus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rovid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prospective entrepreneurs over the age of 40 who want to start a busines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n the future. . Afterwards, the goal is to establish an education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ducated prospective entrepreneurs and retirees over 40 years of 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onfidence and reliability ultimately influence the factors that increas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older people. Satisfaction was foun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rust. The research points out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provide education centered on the trainees rather th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ed on support organizations. Moreover, due to the diversity of education, not only th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but also the education of employees working in supporting organizations is important.

Key Words : middle-aged, entrepreneurship, retirement, prospective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 서론

최근 기업에서 근무했던 중장년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년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퇴직한 중장년들이 창업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2021)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창업지원 예산이 82억 원(1998년)에서 8,492억(2020년)으로 약 100배 증가했으며, 국내 창업생태계 수준은 세계 16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1].

은퇴할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나이에 접어든 중장년이 취업과 창업 등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추세가 늘고 있다.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 수령에 미치지 않아 보유재산으로 노후를 보내기가 힘들다.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저성장에 이어 최근 국제적인 이슈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

창업은 자기 고용을 통한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일자리 및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사회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ICT 기술 발달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

하지만 상대적으로 40세 이상의 중장년 창업은 정책적,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전체 창업 중 40~5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40~50대 비중은 약 66%), 신설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에게 적절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매출 및 고용 등 창업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지원 사업 선정률은 청년보다 낮고 지원 사업의 종류와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4].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의 이름을 '시니어 기술 창업'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으로 바꿨다. 교육내용도 뚜렷한 기술 분야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년은 기술창업을 해야 창업 성공률이 높고 고용 창출에도 유리하며 부가 가치도 높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의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이 '기술창업'이란 목표를 세우고 '기술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창업교육 현장에 있는 실무자의 관점으로 보면 중장년의 개개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창업교육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창업 성공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 품질 및 창업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창업 교육의 만족도 및 품질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한다. 중장년 창업 교육에 있어서 각 지원기관 및 지역별로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가 교육생들로 하여금 창업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창업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하여 중장년 지원기관의 창업 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은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알려져 있고, entrepreneur의 어원인 프랑스어 entrepreneur의 착수하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entrepreneur에서 유래되었다.[5]. 16~17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entrepreneur는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 음악 지휘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원상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상업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즉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가(businessman)와 구별되는 고유한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기업가 정신 표현을 창업가 정신으로 표현하여 어원에 충실하고자 한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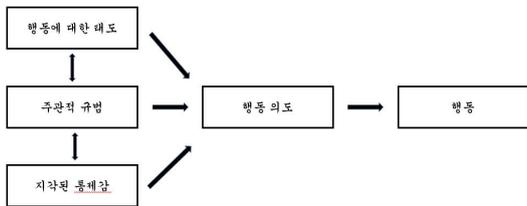
창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의 심리적 특성으로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고 기회를 획득하는 능력 혹은 기술로 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영학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조직의 출현, 새로운 자원의 조합과 활용, 조직과 전략의 기업가 정신으로 설명된 바 있다. [9]. 창업가 정신은 최근 30~4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못한 까닭에 학문으로서 체계가 아직 형성 중인 상태이다. [10].

'창업가 정신'을 심리상태라고 하기보단 행동으로 이해하고 조직 차원에서 창업가 정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창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가지 요소로 수렴되

었고 현재 창업가정신은 3개 요소로 구성된다는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업가정신은 대표적으로 혁신성, 친취성, 위험감수성의 3개 범주로 분류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2. 창업의도

창업의도란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11],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과 경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도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12],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기업이 정신 연구에서도 개념적,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국가나 지역 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 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창업의도에 관한 이론으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들 수 있다. Ajzen이 제시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변수들을 동기부여의 선행변수들로 명명되고 있다.[13-15]. 계획된 행동이론과 관련하여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3. 중장년 정의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장년으로 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정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창업을 시니어 창업의 개념과 최근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볼 때 만 40세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대상은 양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기관에 현재 입주해 있거나 입주한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창업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이다. 지원기관에서 창업교육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육의 신뢰성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향과 효과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 창업가의 범위는 현재 창업지원 정책에서 청년을 39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를 중장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초기 창업 설립 후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했으며,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및 업종, 연령을 고려했다. 이러한 특성과 질적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풍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울경 중장년센터 담당자의 추가 설문조사도 실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창업 교육 전과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표본 구성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에 대한 성과를 교육생의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시니어 대상의 창업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의 환경에 따라 교육생의 특성도 다를 수 있어 경남에 거주하는 시니어이면서 1회 이상 창업 교육 이 수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11월 ~ 2022년 10월까지 사이에 양산시의 기술창업 교육을 이수한 만 40세 이상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320부이며, 설문지를 배포한 후 총 286부의 설문지(응답률:93.0%)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성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의 나이와 창업교육 수료여부만 제한하였으며 그 밖의 성별이나 학력 수준, 현재 직업 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까지 시니어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40대 이상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창업자가 자발적으로 창업교육 참여를 위해 지원한 점을 볼 때 설문 대상자의 학력수준과 직업 등의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표 1〉 중장년 맞춤형 창업교육 과정

구분	과정구성
사업 계획서 작성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지원사업 신청과정의 기초단계 아이템 중 시장반응조사 용이 아이템 선정, 시장반응조사 지원 사업계획서 완성 및 철삭 후 우수계획서 선발예정 선발방법 : 심사를 통한 선발(내부위원으로 구성 예정) 시기 : 6월 중 계획
기초/심화 지식재산권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관련 과정 교육 교육 이후 지재권 사업신청 경남지식재산센터와 협의하여 기초/심화과정 교육 진행 시기 : 7월~8월 중
기술 경영 멘터	구성: 전담멘토링 선택멘토링 체재로 운영 개별코칭 : 중장년(예비)창업자 업종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 1:1 개별코칭실시, 교육기간 내 전담멘토링 : 5인당 1멘토의 멘토매칭(멘토링 데이 실시) 선택멘토링 : 중장년 (예비)창업자 업종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성과측정을 통하여 멘토링 성과 최대화 유도 토론방식 우수멘토 특강실시, 3회
네트워킹	구성 : 창업필수 특강을 포함한 내용으로 세미나 교류회 운영, Q&A포함 특강주제별 사례발표 포함 운영, 사업아이템 별 협약업체 매장 특강주요내용 : 세무/재무지식재산권 마케팅계획, 성공기업조정등 시기 : 8월~10월, 연간 5회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86명 중 남성이 5%를 차지하여 연령별 분포에서는 40대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50대가 30.8%, 60대 이상이 6.1%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고졸이하는 19.4%, 전문대졸은 26.2%, 대졸은 35.1%, 대학원은 19.4%로 나타나 대졸이 가장 많이 구성되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인 경우는 86.0%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1.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퇴직 후 무직은 19.7%, 미취업 무직은 10.4%, 회사원은 7.9%, 학생이 0.7% 수준이었다. 이들의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46.2%로 가장 많았다. 직업과 창업교육 관련 변인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96.%가 직장 경력이 있었으며 1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48.4%이었다. 이들은 주로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단지 1회 교육을 받는 경우는 19.0%에 불과했다. 한 기관에서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64.6% 이었다.

IV.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를 위하여 측정변인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 1.0이상으로

VARIMAX 회전방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교육 서비스 품질의 탐색적인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83.422%의 설명력을 가지며, 요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KMO=.941, Barlett의 구형성분석 결과 $X^2=7523.567$, $df=300$, $p=.802$ 으로 요인분석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신뢰도는 $a=.90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의 요인분석결과 두 개의 변인이 전체 변량의 83.4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KMO=.962, Barlett의 구형성분석 결과 $I=2649.605$, $df=45$ 으로 요인분석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신뢰도는 충성도, 만족도 모두 $a=.956$ 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교육품질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신뢰성	A1	.773	.138	.179	.273	.247
	A2	.806	.112	.201	.312	.261
	A3	.825	.176	.175	.237	.248
	A4	.821	.157	.278	.216	.116
	A5	.803	.273	.200	.135	.240
	A6	.762	.272	.242	.261	.190
	A7	.802	.272	.234	.105	.173
고유치		6.177	4.371	3.791	3.537	2.978
분산의 %		24.712	17.488	15.165	14.145	11.907
누적분산의 %		24.712	42.201	57.368	71.514	83.422
Alpha		.962	.941	.954	.956	.900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퇴직자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서비스 품질(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혁신성, 공감성)이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교육 성과에 관한 문제요인들을 규명하고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년 창업교육서비스에 대한 수강생들의 교육서비스 품질요인들의 인식이 교육서비스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유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 품질이 참가자의 만족도에 비교적 높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과 공감성은 충성도에 직접

적인 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의 유형성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우수성과 분위기 등의 교육 시설관련 요소는 중장년창업자들에게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교육시설의 우수성이 타인에게교육을 추천하거나 향후 모임을 지속하는 것에는 영향을 약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육계획의 준수, 교육내용의 신뢰도 등의 교육 서비스의 신뢰성은 교육생들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교육 만족도가 교육수료생의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육생의 요구에 대한 빠른 반응과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같은 교육 서비스의 반응성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교육 서비스 만족이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사의 전문적 지식과 충실한 강의내용, 쉬운 강의 등 강사의 능력은 교육 서비스의 확산성을 구성하며, 만족도와 충성도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생의 입장을 배려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 구체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등의 교육 서비스 공감성이 높은 창업 교육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교육 주체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장년 창업 교육생들의 경우 교육 서비스의 확산성과 공감성이 만족도나 충성도에 높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장년 창업 교육에서는 교육생을 배려한 교육과 확실한 정보의 제공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장년 창업 교육에서는 교육 기관의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신뢰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서비스 요소들이 교육생들의 만족과 충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장년 창업 교육에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생에게 전달되는 교육내용의 우수성과 교육생에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교육 시 진행자의 마음가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년 창업 교육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년창업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타트업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세무, 마케팅, 수출입 등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구성하고 교육 운영을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강의와 관련된 중장년창업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

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 기관과 강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REFERENCES

- [1] J. Ortmans. (2021).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1*. Startup Genome, <https://startupgenome.com>.
- [2] G. L. Kang & C. W. Park. (2020). A Study on the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Employment and Startup Awareness :Mediating Effects of Corona 19 Social Issu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5), 51-63.
- [3] J. J. Kim. (2020).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enior Entrepreneurship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6(1), 53-72.
- [4] N. H. Kim. (2020). *A Feasibility Study of Senior Entrepreneurs Support Focused on Performance*. M.A.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 [5] D. S Park & E. H Ku. (2007).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20(6), 2979-3011.
- [6] J. K No. (1999).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10(2), 183-21.
- [7] S. B. Kang. (2012). *Report on corporation performance influenced by entrepreneur's motive, entrepreneurship, and advanced prepar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8] B. O. Kang. (2011).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 [9] R. M. Hodgetts et al. (2007). Entrepreneurs Are Made...Not Born. *Journal of Organizational Dynamics*. Summer95, 24(1), 84-86.
- [10] S. Shane.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Edward Elgar Publishing.
- [11] B. S Yoon. (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12] N. S. Yoon. (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dustrial Economics Research*, 25(2), 1537-1557

- [13]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14] T. M. Begley & D. P. Boyd.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 [15] R. P. Bogozzi, (1981).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07-627.